

본 자료는 9월 23일(수) 10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6. 9. 22. [화]	담당부서	지역성장연구실
담당자	서성민 부연구위원 [044-287-3077]		

흔들리는 지방대학 인력양성 기반, 거점국립대 중심의 권역별 인재양성 체계 구축해야

- 비수도권의 학령인구^[6~21세 인구]는 수도권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2038년 이후에는 비수도권 학령인구가 200만 명을 밑돌 전망
- 2019년까지 지방거점대 진학자는 수도권대와 노동시장 성과 격차가 없었으나 최근 경쟁력 약화 조짐이 나타나며, 지방비거점대 진학자는 전반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임
- 2026년 QS 세계대학평가에서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고용주 평판 10.9점으로 수도권 주요 10개교(62.8점)의 6분의 1 수준
- 거점국립대의 인력양성 경쟁력이 더 약화되기 전에 인재양성·연구개발·산학협력 허브로 육성하고, 비거점대와 역할을 연계한 권역별 인재양성 체계 구축 필요
- 지역 인재양성 기반 약화는 지역 산업 역량 저하와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별 대학 단위가 아닌 권역 단위의 통합적 대응 필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대 선호 현상이 맞물리며 지방대학의 학생 충원과 지역 인재 양성 기반이 빠르게 흔들리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인력 양성 경쟁력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이 발표한 「지방대학의 인력 양성 경쟁력 현황과 정책 방향: 권역별 인력 양성 거점 조성을 중심으로」 보고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대 선호 심화로 지방대학의 학생 충원과 지역 인재 양성 기반이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서성민 부연구위원은 “지방대학 내부에서도 인력 양성 성과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이 더 약화되기 전에 이를 축으로 권역 전체의 인재양성 기반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학령인구 감소·수도권대 선호 심화로 지방대학 학생 충원 위기 가속화 전망

비수도권의 학령인구(6~21세)가 수도권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2038년 이후에는 2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교육 목적으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수도권 청년 이동자의 순이동 규모도 2014년 연 1만 명에서 2024년 1만 6천 명으로 증가하는 등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대학의 입학 경쟁률과 충원율은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전체 입학자와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이후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거점대 진학자, 2019년까지 수도권대와 노동시장 성과 격차 없었으나 최근 경쟁력 약화 조짐, 비거점대는 전반적 열세

보고서는 이처럼 지방대학의 학생 충원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인력양성 경쟁력이 실제 노동시장 성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방거점대(광역시 소재 국립대) 진학자는 2019년 노동시장 이행 기준으로 수도권대 진학자와 실질임금 및 고·중숙련직 종사 비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방거점대 진학자의 실질임금은 수도권대 진학자보다 약 3.9%,¹⁾ 고·중숙련직 종사 비중은 5.8%p 낮았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당시까지는 수도권대와 비교해 노동시장 성과에서 뚜렷한 격차가 확인되지 않았다(<표 1> 참고).

다만 최근에는 거점국립대에서도 경쟁력 약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비수도권 국립대 졸업생의 실질임금은 수도권대 졸업생과의 격차가 2011~2013년에 비해 2023~2024년 들어 뚜렷하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그림 1> 참고).

반면 지방비거점대 진학자는 수도권대 진학자보다 노동시장 성과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2019년 노동시장 이행 기준으로 실질임금은 16.7% 낮고, 고·중숙련직 종사 비중은 15.3%p 낮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비수도권 고교 출신의 지방비거점대 진학자는 수도권대 진학자보다 실질임금이 17.6%, 고·중숙련직 종사 비중이 22.0%p 낮게 나타났다(<표 1> 참고).

1) 종속변수가 로그인 경우, 한계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 $(\exp(\text{계수 추정치}) - 1) \times 100\%$

〈표 1〉 지방거점대/지방비거점대 진학자의 노동시장 성과: 수도권대와의 비교

	log(실질임금)			고·중숙련		
	전체	수도권 고교 출신	비수도권 고교 출신	전체	수도권 고교 출신	비수도권 고교 출신
	(1)	(2)	(3)	(4)	(5)	(6)
지방거점대	-0.0397 (0.0902)		-0.0349 (0.106)	-0.0576 (0.0929)		-0.113 (0.103)
지방비거점대	-0.183*** (0.0503)	-0.174** (0.0683)	-0.193** (0.0765)	-0.153*** (0.0542)	-0.0287 (0.0758)	-0.220*** (0.0734)
통제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Observations	334	131	203	396	145	251
R-squared	0.192	0.177	0.227	0.090	0.134	0.098

자료: 서성민(2026), 「지방대학의 인력양성 경쟁력 현황과 정책 방향: 권역별 인력양성 거점 조성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표 3〉.

주. 1) 4년제 대학 출신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지방거점대를 광역시 소재 국립대로, 지방비거점대를 그 외 지방대학으로 분류하였으며, 비수도권의 과학기술특성화대(과학기술원, 포항공대)는 분석에서 제외, 2)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중3코호트(2004년 기준 중3에 해당) 자료를 사용하여 지방대학 진학자와 수도권대 진학자의 노동시장 이행(2019년 시점) 성과를 분석한 결과, 3) 수도권 고교출신자가 지방거점대(광역시 소재 국립대)에 진학한 사례는 본 분석 표본에서는 관측되지 않음(2)열 및 (5)열, 4) 이분산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보고, *** $p < 0.01$, ** $p < 0.05$, * $p < 0.1$, 5) 자세한 분석 설명은 서성민·박민성(2025) 참고

〈그림 1〉 대학유형별 출신자 연도별 노동시장 성과 차이



자료: 한국노동패널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1) 실질임금은 월평균 기준이며 단위는 만원(세후, 주된 일자리 기준),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실질 가치화, 2) 각 시기와 대학유형별 만 25~34세 임금근로자 대졸자의 평균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한 결과, 3) 2020~2022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으로 분석에서 제외, 4) 고·중숙련직의 정의는 서성민·박민성(2025) 부록1 참고

□ 국제 대학경쟁력 지표에서도 비수도권 거점국립대는 수도권대에 비해 열세

이러한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는 대학 자체의 경쟁력과 평판 차이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6년 QS 세계대학평가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의 고용주 평판 점수는 10.9점으로 수도권 주요 10개 대학의 62.8점에 비해 약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학계 평판, 국제연구망, 지속가능성 등 주요 지표에서도 비수도권 거점국립대는 수도권 주요 대학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표 2〉 참고).

특히 낮은 대학 평판은 졸업생의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초기 취업 단계에서 발생한 격차가 이후 임금과 직무 수준의 차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는 지방대학의 인력양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

육 여건 개선뿐 아니라 연구역량, 산학협력, 대외 평판을 함께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2〉 대학유형별 2026년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세부지표 평균

대학유형	학계 평판	고용주 평판	교원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교원 대 학생 비율	국제연구망	지속가능성
수도권 주요 10개 대학	54.4	62.8	48.0	73.1	56.3	74.4
수도권 주요 7개 대학	37.6	48.0	37.5	69.1	48.6	68.5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13.8	10.9	22.7	54.5	37.8	61.1
비수도권 과학기술원	20.0	18.9	99.8	77.2	23.8	51.9

자료: QS TopUniversities 웹사이트(<https://www.topuniversities.com/>)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주. 1) 수도권 주요 10개 대학은 QS 랭킹 기준 수도권 상위권 대학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세종대, 중앙대, 이화여대, 서강대로 정의, 2) 수도권 주요 7개 대학은 수도권 주요 10개 대학에서 최상위권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대학을 제외, 3) 비수도권 거점국립대는 QS 자료가 존재하는 비수도권의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소속 대학(부산대, 경북대, 전북대, 충남대, 전남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으로 집계, 4) 비수도권과학기술원은 QS 자료가 존재하는 비수도권 과학기술원(UNIST, DGIST, GIST)으로 집계

□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비거점대와 연계하는 ‘권역별 인재양성 체계’ 구축 필요

보고서는 거점국립대의 인력양성 경쟁력이 더 약화되기 전에 이를 권역 내 인재양성·연구개발·산학협력의 핵심 허브로 육성하고, 비거점대와 연계하는 ‘권역별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거점국립대는 연구와 첨단인재 양성, 산학연 협력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비거점대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 지역·산업 수요에 특화된 교육 등 대학별 강점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권역 전체의 인재 풀을 확대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동학위제와 공동 교육과정, 학점·교원 교류, 교육·연구 인프라 및 산학협력 자원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해 거점국립대와 비거점대의 역량이 권역 내에서 확산·보완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보고서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개별 대학을 넘어 지역의 인력양성 기반과 지역혁신체계의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대학별 분산 지원에서 벗어나 권역 단위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서성민 부연구위원은 “대학 지원도 개별 대학에 대한 분산적 지원에서 벗어나 권역별 인재양성 거점을 구축하고 그 역량이 권역 전체로 확산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대학 지원사업과 R&D 사업을 권역별 인재양성 체계에 맞추어 연계·재편하고, 이를 지역 성장산업의 인력 수요와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따로 붙임: “지방대학의 인력 양성 경쟁력 현황과 정책 방향: 권역별 인력 양성 거점 조성을 중심으로”